

투데이 칼럼

북한 최악의 경제위기

북한 경제는 계속된 대북제재와 코로나 봉쇄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당연히 민심도 동요할 수밖에 없다.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은 먹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면서 선진선등으로 민심을 단속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의류, 석탄, 철광석, 어패류 수출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며 북한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전체 북한 수출은 26억 불 정도였다. 지금은 2억 불 수준으로, 90% 가까이 급감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에 있어서 굉장한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직후 국경이 봉쇄되면서 식료품가공품들이 제대로 수입이 되지 못했다.

2020년 4분기부터 밀가루나 콩기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서 생사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이 악화됐다.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체제 생존에 직결되는 '농업' 즉 먹는 문제에 집중 투자했다.

협동농장이 가진 미상관 대부 대출을 갚지 못하자 담감해 주기도 했



정복규
논설위원

다.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의 생산물에 대한 국가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민간 자금을 국가재정으로 흡수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실시중이다. 통장을 개설해서 저축을 하게하고 인출할 때는 절차를 거처도록 하는 방식의 강제 저축을 확대했다.

2021년에 발행했다는 중앙은행 돈표는 5만 원권과 5천 원권이 있다. 외화를 보유한 주민들이 돈표로 바꿔서 이것을 거래하도록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가진 외화 사용을 억제하고 주민들이 가진 외화를 북한 당국이 흡수해서 쓰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북한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사회통제, 사상교양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결국 비사회주의와

퇴폐적인 사상, 문화를 혁명의 사상, 문화로 쓸어버리자는 것이다.

어차피 존재하고 있는 반동적인 사상을 공세적인 관급 메시지로 덮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미디어 전략이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방송시간을 대폭 늘리고 열병식이나 공연 등 초대형 국가행사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묶어두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콘텐츠에는 당국의 사상적인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다. 메시지의 경직성은 심화가 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이 쉽게 피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민성화된 위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이상 내년에도 강력한 사회통제, 사상 강화 활동을 벌여나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할로를 모색하기 위해 2023년에는

중국과의 관광 협력을 확대하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거나 위안 경로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무역을 재개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문제 해결이다. 빵 문제 해결 없이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북한은 베트남에서 배워야 한다. 베트남은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강력한 개혁개방을 실시했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해외자원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특히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은 베트남 경제의 견인차가 됐다. 북한도 서둘러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상적으로 무장해서는 결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당근 보따리를 챙겨 북한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 개발을 꾀할 수 있다.

반면 핵과 미사일을 거머쥔 채 다시 지루한 협상이나 비장 끝 전술 쪽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 담판은 향후 북한 체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이다. 김정은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9년 동안 핵과 미사일 도발, 권력 기반 다지기, 경제 건설 추진 등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사설

순창의 조합장 투표장 참사

순창의 어느 조합장 투표장에 서 벌어진 참사는 인재라는 비난이 거세다. 경찰은 1차적으로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차고, 즉 조합장 투표소 관리가 문제가 없었는지가 중요하다. 사고가 난 곳은 구립농협이 원래 기자재 창고로 쓰던 건물 바로 앞이다. 조합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창고 안을 비우고 투표소를 차린 것이다.

순창 구립농협 선거관리관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농협에서 가까운 곳, 1층이여야 한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확인하고 여기 괜찮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선거사무원을 뒤 유권자들이 신분확인을 받으도록 했다. 그 뒤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대로 향하게 내부 통선을 켜다. 투표를 하려면 투표소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차례대로 들어가는

구조다. 문제는 투표소 입구 바로 앞이 주차장 출입구 부근으로 차량들이 드나드는 곳이란 점이다. 마을 주민들은 "투표장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교차로 사거리 바로 옆에 투표장을 만들어서 아침에 복잡하더라도 위험성도 낮고"라고 했다.

농협 건물에는 비료 같은 농자재를 파는 상점이 있어 평소에도 오가는 차량이 많았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도 사료를 산 뒤 이동하던 중이었다. 차량 통행로에 유권자들의 동선을 잡아놓고 차 진입을 통제하는 안전 관리 요원이나 안전장치는 전혀 두지 않았던 것이다. 교통 통제를 위한 인원은 없었다.

조합장 선거로 평소보다 붐빌 것으로 예상하고 농협 직원 세 명이 건물 밖에 나와 있었지만, 주차 관리에 주로 신경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표소 안전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기 바란다.

국힘 전당대회 막내려... 신임 당대표에 관심 집중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리면서 신임 당대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 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다. 50% 넘게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까지 안 가고 매듭지었다.

함께 뽑힌 최고위원 5명까지 이른바 '천운 지도부'가 완성됐다는 평가다. 이번은 없었다. 당일 투표 100%로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 후보 승리로 끝났다. 김 후보는 52.9%,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 투표를 지지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역전의 기회 없이 고배를 마셨다.

집권 초기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제 민생문제 해결에 나설 때라며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

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내홍으로까지 이어졌던 이른바 '윤심 논란'을 의식한 듯 경쟁 주자들을 호명하며 대통령 합을 이루겠다고 했다. 차기 지도부도 이른바 '친윤석열계'로 채워졌다. 최고위원에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청년최고위원에도 '윤심'을 내건 장예찬 후보가 당선됐다.

8개월 만에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새로 들어선 '김기현 호'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직 인선과 조직 정비에 착수한다. 김 대표 당선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시나리오에 따른 수순이자, 정당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대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뽑히면서 새로운 선장의 항해에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시아 공급 피해 잔해 정리하는 주민들



지난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주 즐로체우스키에서 주민들이 러시아군의 야간 로켓 공격으로 무너진 집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시진핑, 만장일치로 주석 재선출 '3연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주석으로 선출된 후 선서하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3연임' 국가주석이 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